

## 한국형 인물 소재로 글쓰기

### Writing With Korean-Type Character's Sources

김은미\*, 김금미\*\*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EUN MI\*, KIM KUM-MI\*\*

KYUNG HEE Univ.\*, HUFS Univ.\*\*

#### 요약

21세기 글쓰기 방법은 더 이상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신화적인 인물과 이야기는 소설에 적용된다. 또한 보편적인 인물로 정형화되어 곳곳에 사용 되어 진다. 한국 영화 “전우치”에 나타나는 폭력성이 어디서 기인하는가를 인물을 분석으로 한국형 인물 소재로 글쓰기를 제시하려고 한다.

## I. 서론

신화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 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 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 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도 해 준다. 신화는 또 다른 말로 역사라고도 한다.[1]

## II. 성장하지 않는 미국

신화는 사춘기에 들어선 어부 왕이 뜨거운 물고기를 삼키려다 입안에 상처를 입게 된다. 이로써 아픔으로 신음하는 어부 왕이 탄생하는데 현대인은 모든 어부 왕과 같은 상처를 안고 있다. 어부 왕처럼 성장기에 예기치 않은 곳에서 물고기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적인 특질(열정)을 맛보지만 이는 삼키기엔 너무 뜨겁고 잇기에 너무 강렬해 깊은 상처로 남는다.[2] 이것은 미국의 개척정신으로 시작되어 가진 것 없어도 개인의 자립, 자유 안에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강대국이라는 성공 즉 열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은 전쟁이(약소국과의 대립 관계가) 바로 그 어부왕의 성장기에 유사한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사춘기에서 잘못 된 선택으로 성장이 멈춘 미 성숙된 어른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미국은 현재는 경제, 문화, 정치 세계의 강국상태의 멈춤 상태는 개인의 능력만 있으면 성공 할 수 있고 아메리카 드림이란 그 이미지를 유지해 오고 있다.

## III. 영화로 보는 미국

### 1. 영화로 보는 미국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 문화의 대표적인 영화 또는 책으로 빠르게 그들의 정서와 이념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중심 이념 중에 하나인 성공 이라는 말 속의 자립, 자유, 경쟁 등을 영화 <태양의 제국> 예를 들어서 경제전쟁에서 패한 미국인의 불편한 심기노출과 일본인 비하로 인종 편견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800년대 남북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남녀의 애증의 관계와 남성 중심시대에 여성이 전쟁의 중심에 가족을 위해 헌신하

고 성장해가는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인의 삶에 희망을 주었다. <슈퍼맨>, <윈터우먼>, <스파이더맨>등에서 초월적 힘을 가진 전지전능한 신을 대신하는 특질을 가진 인간형과 지적인 서민을 대변 신문사 사진사, <어거스트 러쉬>는 미국에서 "네가 재능과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통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08 미국의 대선 출마해 232년 만에 미국의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당선, 미국의 전통적인 예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부시 정권의 까지 정체되어 있던 미국을 그로 인해 변화와 성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미국의 정서가 우리의 정서에 직, 간접적으로 교육되어지고 있고 변화 되고 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순천향대학교 국제 문화 과 10명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다. "사춘기에 본 영화와 문학이 성장기에 미친 영향" 흥미로운 결과를 던져준다. 30%는 사춘기 때 본 TV 드라마에서 1977년<윈터우먼>을 보고 자란 아주머니는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무거운 것을 드는, 신비하고, 수영복만 입고 나오는 이상한 여자로 보였다고 한다. 그 아주머니는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거나 남자처럼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난 "윈터우먼"이야! 혼잣말을 하게 되었다고, 그 의미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암시를 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그 외에 <인디애나 존스>,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본 친구는 고고학자,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고 유년시절에 보게 된 책, 영화 등이 간접적으로 교육이 되고 어른이 될 때 까지도 각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리서치에 대답한 7명의 학생들 모두 취미생활, 사회관습, 가정, 학교교육에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해 주었다. 21세기에는 좀 더 다양한 사람을 이해 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내면적인 다양한 이야기와 좀 더 동양 철학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하다.

## 2. 영화로 보는 한국

실존인물 "전우치"는 조선 중기의 기인으로, "전우치전"의 주인공이다. 그의 생애와 전설 등을 바탕으로 꾸민 도술을 이용해 탐관오리 규탄, 국가의 재물로 빈민 구제, 국왕의 권유에 조정 관직을 맞는 등은 내용은 "홍길동전" 영향에 탄생 되었다. 작자와 연대 미상의 구소설로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도술에 중점을 둔 것이

다.

2009년 개봉작,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 영화에서 누명을 쓰고 그림족자에 봉인된 조선시대 악동 도사 전우치가 500년 후인 2009년 현대에 봉인이 풀려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들에 맞서 싸우는 활약상을 그린다. 영화에서 전우치와 화담의 대립 장면으로 주위의 건물들이 부서지고 불타는 장면은 다분히 미국적인 폭력성이 내포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우치의 인물들은 인위적인 공간, 영화 세트 장이나 이미지에서 만 가능하다.

## IV. 의식의 변화

세계는 자원의 고갈과 사람들의 의식이 물질주의에서 자연으로 되돌아가고픈 마음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전쟁은 이젠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의 자국민들도 자각하고 있으며 2008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캐릭터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21세기를 열어가고 있다. 이런 캐릭터의 변화들은 용이 말하는 인간의 의식이 삼위일체에서 사위일체로 확장[5] 되는 것과 유사하다. 인간은 결점이 있으면 실수하는 행동 속에서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올바른 길로 가게 유도 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이룩해 놓은 전통을 상기 시키면서 오바마는 국민들에게 화합과 단일성을 강조한다.

롤랑 바르트는 책을 한번 읽기가 아닌 재독이 필수적이며 그것은 새로운 글쓰기로 이어진다. 그것은 쓰기가 작가들은 전유물이 아니며 읽는 사람, 또는 독자들의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

## V. 결론

현재 한국 급속한 산업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고 우리의 전통 일부를 삶이 아닌 박물관에 표본화 시켜 왔다. 전우치가 박물관 족자에서 튀어나오는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바깥에 버려진 우리의 신화와 설화들이 이제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지금 현재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것을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우치의 과장스런 인물의 캐릭터 처럼 왜곡되고 도술만 부리는 정제되지 않은 캐릭터의 난무는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가야 할 부분이다. 한 때 조폭 영화라고 부르는 장르가 경제 논리에 이야기를 만들던 사례처럼 주의를 할 부분이다.

신화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흔히 새 시대를 위한 신화가 등장한다. 신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 주는 서곡 같은 것이다. 또 신화는 새 시대에 등장 할 심리학적 요소들을 어떻게 대처 할지에 대해 지혜가 담긴 조언을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배려와 인내심 근면이란 변화를 가진 한국형 캐릭터이다. 단군신화의 꿈이 캐릭터화 된 시공간을 초월하는 캐릭터 소재로 재독에 의한 재창조 되는 한국형 서사 글쓰기의 가능성을 보여 줄 것 이다.

### ■ 참고 문 헌 ■

- [1] 이재광, 김진희, "영화로 쓰는 20세기 세계경제사", 한국역사문화연구소 혜음
- [2] 한덕웅, 성한기, 강혜자, 이경성, 최훈석, 박군석, 김금미, 장은영 공저, "사회심리학", 제12장 pp. 398, 학지사, 2005
- [3] 로버트 A. 존슨/ 고희경 옮김 "신화로 읽는 남성성 He", 동연, 2006.
- [4] S/Z, BARTHES, Roland, Farrar Straus & Giroux
- [5]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장진 역,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 책들, 2008.